

보 도 자 료

배 포 날 짜

2026. 6. 25. (목)

총 3페이지

2026년 6월 25일 경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8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경북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총 3장

담당자

김경미 센터장

연락처

054-255-1318

성 명 서

반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미흡한 처벌과 국가의 책임 부재!!

“확산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3명 인력에 의존하는 지원체계는 붕괴 직전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 충원·시설화·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국가가 가장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

다.

현장에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는 피해자의 구조, 상담, 의료·법률 지원, 자립 지원 등 전 과정에 개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센터는 단 3명의 종사자가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충분한 개입과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2024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판결 373건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66.3%에 달했다. 또한 주요 감경 사유로는 '진지한 반성'이 83.2%, '초범'이 76.8%로 반복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실감을 안기고, 가해자에게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책임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해자는 평생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체계에 대한 부족한 투자와 실효성 없는 처벌은 결과적으로 성착취 범죄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보호는 부족하고 처벌은 약한 현실 속에서 아동·청소년은 또다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경북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정부와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여 집행유예 남발을 방지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사법부는 성구매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강화하라.

성착취 범죄 수요를 조장하는 성구매자와 알선업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과 처벌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를 독립된 전문 지원 시설로 전환하라.

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지원 기관으로 시설화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최소 5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라.

피해 규모 증가와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자립 지원 등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받으며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야 할 또 하나의 주체이지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현장의 헌신에만 맡기는 구조,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 즉시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와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북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모든 아동·청소년이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년 6월 25일

경북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